

광주시 요란한 투자유치 실속없다

최근 3년동안 301개 업체와 MOU
實투자액 12% 불과 고용은 14% 뿐

#1. 2011년 5월 31일. 광주시투자유치단은 스페인에서 LED 스크린 제조업체인 글로벌 기업 A사와 5000만 달러짜리 투자협정을 체결했다는 낭보를 전해왔다. A사의 광주투자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2. 2011년 5월 2일. 강운태 광주시장은 미국 투자유치활동 보고회를 갖고 "세계최고 기술을 갖춘 미국 B사와 협력해 광주는 수소연료전지의 메카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미국에서 B사와 광주에 수소연료전지공장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였다.

시는 B사와의 MOU를 앞세워 같은 해 11월 광주시의회 2012년 예산심의에서 수소연료전지보급 사업비로 10억원(시비 100%)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시의회는 본예산심의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으나, 결국 추경심의 때 B사의 광주 공장설립을 조건으로 예산을 부활시켰다.

하지만, 이 두 투자유치 모두 무산됐고 지역민을 위해 쓰여야 할 10억원의 예산도 1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광주시가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가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무리한 투자유치로 '헛심'만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투자에 관심만 보이는 단계인 데도 마치 투자가 성사된 것처럼 꾸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시의회까지 압박해 지원예산을 반영했다가

투자유치가 무산되는 사례까지 드러내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투자행정에 대한 신뢰도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중 지금까지 실제 투자업체는 114개(국내 102개·국외 12개)로 37.9%를 차지했다. 실제 투자 금액은 4919억원(국내 4018억원·국외 901억원)으로 12%에 불과했다.

실제 투자업체 비율을 국내외로 분류하면 국내는 42.7%이지만, 국외는 19.4%에 불과했다. <2면에 계속>

(국내 2조 2669억원·국외 1조 828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중 지금까지 실제 투자업체는 114개(국내 102개·국외 12개)로 37.9%를 차지했다. 실제 투자 금액은 4919억원(국내 4018억원·국외 901억원)으로 12%에 불과했다.

실제 투자업체 비율을 국내외로 분류하면 국내는 42.7%이지만, 국외는 19.4%에 불과했다. <2면에 계속>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민주통합당 원자력 안전문제 특별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영광군 흥농읍 영광원전 5호기를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광=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성공축제는 지방자치 실현 기여 실명제 도입해 낭비성 축제 퇴출

광주일보 주최 '성공하는 지역축제 아카데미' 성황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의 성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축제 책임자의 실명제 도입과 축제 전문가의 계약직 공무원 영입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관련기사 2·5면>

송대갑 전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실장은 13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성공하는 지역축제 아카데미'에서 "광주·전남이 중앙정부의 재정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축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재정적인 면에서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탈피해 자치단체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 "지역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창조가 필요하며, 지역활성화

의 수단으로서 축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송 실장은 그 근거로 독일 뮌헨 맥주축제를 예로 들며 "맥주축제에 매년 60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1조원 이상을 지출한다"면서 "맥주 축제가 사실상 뮌헨의 지역경제를 이끌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나경수 전남대 교수도 "1984년 캐나다의 퀘벡시에서 시작한 '태양의 서커스'가 작년 한해에만 1조원 이상의 수입과 1억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모았다"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어 서커스를 재해석해 쓰레기 매립소로 알려졌던 퀘벡시를 세계인이 찾고 싶은 축제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다"며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종합 토론자로 참석한 호남

대 송진희 교수는 지역축제를 이끌 전문 인력 육성을 주장했다. 송 교수는 "축제가 끝나고 나면 성공 여부를 떠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축제 책임자 실명제 등을 도입해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축제를 완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광주일보사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광주시, 전남도의 후원으로 13~14일 이틀간 열린다.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문화관광축제 공무원과 축제 기획추진위원, 축제관련 기업 대표 등이 참가해 지역별 축제의 장·단점을 분석·평가하고 경쟁력 강화를 모색한다.

14일에는 유영숙 세계축제연구소장이 '성공한 세계의 지역축제 사례 분석'을 발표하고, 광주·전남 우수 축제 사례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박근혜 '호남 총리' 카드 현실화 될까

대통합 메시지 강화·단일화 정국 돌파 위해 검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이 '호남 총리'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후보 측에서 검토중인 호남 총리 카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야권 단일화 태풍을 정면 돌파하고 대통합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박 후보가 대통합 행보의 무게 중심을 '동서화합'에 두고 거듭 '탕평인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호남 총리 카드'의 현실화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황우여 새누리당 대 표는 13일 '주변과 당 안팎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당 대표로서 언

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호남 인재 발탁과 대응이 중요하며 호남 총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후보가 실제로 '호남총리 카드'를 내세울 경우, 추후 대선 정국에서 단일화 태풍에 맞설 만한 새로운 비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호남 총리 카드'가 현실화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야권의 단일화 카드에 맞설만한 인물 발탁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경경재부 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락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제3의 인물'도 거론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권에 대부분의 인재풀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어기에 당내 일각에서는 호남 총리론으로 오히려 영남·표의 이탈이 가속화되지 않느냐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후보 선대위에서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전남 출신의 김황식 총리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지역균형발전과 탕평인사를 대통합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박근혜 후보로서 호남 총리 기용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호기 균열징후 2004년 알고도 조치 안해"

민주 원전특위 영광원전 현장점검...부품 교체·한수원 사장 사퇴 등 촉구

원전 당국이 영광 원전 3호기 원자로 내 제어봉 안내관에서 발생한 균열 조짐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낙연·신하용 등 국회의원 7명으로 구성된 민주통합당 원자력 안전문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 원전특위)는 13일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기하고 관련자료를 요청해 추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3호기의 균열 조짐은 2004년부터 한수원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안전관의 상태가 균열에 이르기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고 따졌다.

유 의원 또 "현재 영광원전 5호기

와 6호기는 조사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3호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한수원측의 발표가 없다"며 "3호기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균열을) 발견했지 그전에 발견해서 가동 정지한 게 아니다"며 "다른 발전소에는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나. 동일한 사고나 결함이 다른 발전소에서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2004년 결함이라기보다 균열 징후가 있었던 것"이라며 "매주기마다 철저하게 비교과 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어느 단계 이상이면 문

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올해에는 그 정도가 과했기 때문에 정비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광 3호기에서 발생한 균열을 응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발전소 가동 중에 이런 균열이 있었다면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응집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지 말고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합의해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에 임하는 원전 당국의 단일 보고태도와 준비도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한수원측이 답변 과정에서 검증 부품과 미검증 부품을 비교하

며 보여준 실물을 보여 실제 위조 부품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기홍 의원은 '미검증'이란 용어를 문제 삼고 "미검증 부품은 정품과 동일부품이며 보증서만 위조된 것이라는 뜻기는 답변은 허탈하기까지 하다. 서류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면 부품까지 왜 교체하느냐"며 원전 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꾸짖었다.

한편 민주당 원전특위는 현장점검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조 부품 사용 원전 가동 중단 후 전면적인 안전점검 ▲영광 3호기 원자로 내제어봉 안내관 균열 부품 전면 교체 ▲민주당 추천 인사 민관합동조사단 포함 ▲김군섭 한수원 사장과 강창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비교할수록 **TOYOTA**

TOYOTA 광주전시장 OPEN 이제 광주에서 비교해 주세요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36개월 무이자 할부

광주전시장 062_371_8383

TOYOTA
Smile for Tomorrow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더 넓은 세상을 보라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600여명의 취재 기자와 전세계 35개국 46개 도시에 파견한 60여명의 해외특파원망을 통해 24시간 생생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로 우리의 소식을 전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